

아라



언니

경기 별로인데 금리가 왜 안 떨어져?



주아

그게 본 회차 핵심이야

Q&A 4월 1주차 (2026-04-06, parent: Part 3-5강)

두 분 질문이야

정버핏님 — 금리 역설 + 달러 스마일 + 금리 5% 임계점

슈파님 — 인플레이션 포트폴리오 전략

강사는 Part 4에서 다룰 내용 사전 그림이라고 해

아라



본 회차 핵심은?



주아

교과서 경제학이 점점 틀리는 시대

1980~2021의 40년 시대는 끝났어

금리·환율·자산 모든 변수가 옛 공식과 다르게 움직여

금리 결정 2 힘

교과서는 민간 수요만 다뤄

경기 ↑ → 차입 ↑ → 금리 ↑ / 경기 ↓ → 금리 ↓

근데 또 한 힘이 있어 — **물가**

물가 ↑ → 연준 금리 ↑ / 물가 안정 → 금리 인하 여유

이게 교과서가 잘 안 다루는 변수야

최근엔 민간 수요보다 **물가가 더 큰 영향**

2024-09-18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5.5% → 3.75% 대폭 낮췄어

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4.3%로 오히려 상승

아라

왜?





주아

이유 ① — 기준금리 낮추니 물가 상승 기대 ↑

돈 빌려주는 사람이 명목 금리를 높게 요구해

이유 ② — 정부 과잉 차입 (재정 지배)

미국 정부 부채 \$39조 (GDP 124%)

9년에 2배. 미친 속도야

민간 안 빌릴 때는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

근데 정부가 매년 수조 달러 적자 + 부채 발행

국채 공급 넘쳐 → 금리 못 내려가

정부가 빌린 돈 시장에 뿌리며 침체 막아 → 금리 상승

아라



비유로 설명해줘



주아

배추 비유 — 배추 100포기 있을 때

20포기 사가다가 39포기 사가면 배춧값 폭등

9년간 미국 GDP가 2배 성장 못 했는데 부채는 2배 늘었어

시장 원리대로면 침체가 와야 하는데 정부 지출이 그 하락을 막는 비정상

이게 재정 지배(Fiscal Dominance)야

스태그플레이션 — 1973 평행

물가 충격 두 종류

수요 측 인플레이 — 연준 금리 인상으로 잡힘

공급 측 인플레이 (이란 전쟁 유가) — 금리 올려도 안 잡혀

→ **스태그플레이션** (경기 침체 + 인플레이 동시)

유가 ↑ → 모든 것 가격 ↑

전기차도 니켈 채굴·태양광 패널 제작 모두 에너지

1970년대 2번 오일 쇼크로 침체 + 인플레이 동시

아라



지금도 그럴 수 있어?



주아

미국 250년 중 스태그플레이션은 10년 = 4% 확률

그러나 현재 이란 전쟁 + 호르무즈 + 섯인 가능성

1970년대와 비슷한 조건 형성

위험 그 어느 때보다 높음

달러 스마일 — 양극단 모두 강세

Q1-2. 달러 강세는 좋은 신호인가?

모건 스탠리 스티븐 젠 2001 이론이야

왼쪽 위꼬리 — 글로벌 위기, 안전 자산 수요 → 강세

하단 — 미국 외 국가 성장, 달러 해외 유출 → 약세

오른쪽 위꼬리 — 미국 강한 성장, 금리 인상 → 강세

현재 = 왼쪽 위꼬리 — 이란 전쟁 안전 자산

원유 사려고 달러 수요 ↑ → 확보 모드

아라



근데 달러 인덱스가 110도 못 갔다며?



주아

맞아. 100에 머물

예전만큼은 아니야

이유 ① — 이란이 위안화 결제 시 호르무즈 통과 허용 제안

달러 위상 흔들림

이유 ② — 미국 부채 \$39조 → 안전 자산 지위 손상

금은 어떻게?

달러 강세 영향으로 조정

강사 시각 — **조정 받을 때 분할 매수**

금의 무기 = 희소성.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함

변동성 큰 시대 미래 대비 방주

금리 5% 임계점 — 래리 핑크

Q1-3. 5% 임계점은 왜 중요한가

블랙록 CEO 래리 핑크 — 2023-09 + 2026-01 재경고

'10년물 금리는 최소 5% 이상으로 갈 것.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'

할인율 메커니즘이 핵심

주식 가치 = 미래 이익 / 할인율(금리)

아라



한국은?



주아

한국은 성장률이 미국 절반이라 임계점도 절반 미만

4.0% 근처만 가도 위험, 4.5%면 매우 큰 위험 신호

다만 한국 기관은 알고리즘 동원이 적어 엇박자도 있어

60:40 종말

Q2. 인플레이션 시대 포트폴리오 전략

60:40은 인플레 앞에서 무너져

전통 공식 — 주식 60% + 국채 40% (특히 장기)

전제 — 주식 빠지면 채권 오른다

1980~2021 저금리 시대 유물

1980~2021 — 침체 → 금리 ↓ → 채권 ↑ → 주식 손실
상쇄

2022+ — 금리 ↑ (물가 + 정부 부채) → 채권·주식 동반
하락

증거 — 2022년 나스닥 -33% 시 채권 가격도 동반 폭락

강사는 장기 국채를 안전 자산에서 완전히 제외했어

경기 침체 와도 금리가 못 내려가는 시대니까

핵심 질문을 바꾸기

'이 자산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자산이냐.'

아라



현금은 왜 함께 녹아?



주아

현금 함정 — 계좌 100만 원이 그대로 100만 원이지만

실질 가치가 몇 년 뒤 반토막

인플레가 현금 가치를 박살 내거든

가격 결정력 — 인플레 시대 핵심

Pricing Power — 원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

커피 전문점 비유야

원두 500원 → 1,000원 상승

일반 카페: 4,000원 → 4,500원 인상 → 손님 절반 ↓ → 다시 4,000원

마진 잠식 → 주가 하락

독점·네트워크 카페: 4,000원 → 5,000원 인상해도 손님 안 줄어

이익 유지 → 주가 방어

가격 결정력의 조건 — 강한 브랜드 / 독점적 위치 / 대체재 없음

가격 결정력 없는 기업은 인플레 시대 가장 먼저 쓰러지는 영역

그것 있는 기업조차 스태그플레이션(경기 침체 동반)에는

■ 교과서 vs 새 시대 모니터링

- 01 장기 국채는 완전 제외**
— 60:40 종말. 강사 본인이 안전 자산에서 뺀 자산
- 02 단기 채권은 고금리 수혜**
— 1년 미만 단기채는 인플레 시대 버티는 자산
- 03 금·은은 조정 시 분할 매수**
— 무기 = 희소성. 변동성 큰 시대 미래 대비 방주
- 04 10년물 금리 임계점**
— 미국 5% / 한국 4.0~4.5% 모니터링



주아

오늘 회차 끝

교과서 vs 새 시대 핵심 변수 풀세트야

아라



고마워 언니

60:40 다시 짜야겠다

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&A 4월 1주차 회차(2026-04-06, parent: Part 3-5강) 콘텐츠 정리본이다. 강사 본인 정수 + 강의 자체 정량(래리 핑크·스티븐 젠·미국 \$39조 부채) 인용으로 구성. 외부 자료 보강은 본 회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다.